

소비자재무관리행동에서 태도의 역할: N세대와 베이비부머세대의 재무관리행동모델 비교

박주영(충남대학교 소비자생활정보학과 교수)

김정현(서울대학교 생활과학연구소 전임대우연구조교수)

본 연구에서는 재무관리행동 모델의 태도 변수가 지식과 능력 사이에서 매개변수 역할을 한다는 기존 연구의 가설을 검증하고, 이에 근거하여 N세대(1975-1987년생)와 베이비부머세대(1955-1963)의 재무관리행동 차이를 비교 분석하였다. 연구 수행을 위해 경제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20세 이상의 일반 소비자 1,04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김정현(2011)의 설문 자료를 사용하였으며, AMOS 프로그램의 경로분석을 통해 N세대와 베이비부머세대의 경로분석모델을 개발하였다.

본 연구의 결과는 소비자재무관리 교육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재무관리 교육 프로그램에 태도, 심리적 영역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것을 뒷받침 해 줄 것이다.

참고문헌

- 김정현(2011). 소비자 재무관리역량 척도 및 지수 개발 연구.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
- 주소현, 김정현(2011). 세대별 개인재무관리 관련 태도 및 행동 분석: N, X, 베이비부머, 전생세대를 중심으로. 소비자정책교육연구 7(3), 123-146
- 박주영, John E. Grable, 서재범(2010). 통제위치(locus of control)와 재무관리행동: 한미 비교 연구. 소비자학연구 21(3), 263-288
- Grable, John E., Joo-Yung Park, So-Hyun Joo(2009). Explaining Financial Management Behavior for Koreans Living in the United States. The Journal of Consumer Affairs 43(1), 80-107
- Ferry, Vanessa G., Marlene D. Morris(2005). Who Is in Control? The Role of Self-Perception, Knowledge, and Income in Explaining Consumer Financial Behavior. The Journal of Consumer Affairs 39(2), 299-314